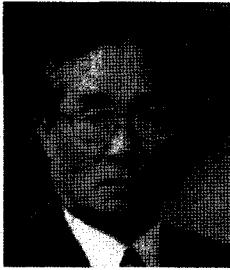


양봉요법 강좌(蜂毒療法講座)



회장 고상기(高相基)

한국봉료보건연구회
국제봉료보건학술연구회 부회장

한국양봉협회로부터 봉침요법에 관한 연제를 다시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한참 망설이다가 봉침요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된다면 하는 생각에서 다시 연제하기로 결심하였다.

전에 연제하마있는 봉침요법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임상위주로 연제하다보니 그 내용에 있어서 저 자신도 불만이 많았고 미숙한 내용도 많았던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랄 뿐이다.

꿀벌의 독침을 침의 도구로 삼아 인체의 경락과 피부, 혈위, 아시혈등에 여러 기법의 침자(針刺)를 통해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방법을 봉침요법이라 한다. 봉독은 꿀벌의 독침의 독선(毒腺)과 부선(副腺)에서 분비되는 것으로서 질병치료에 응용할 수 있는 독소이다

봉침은 인체의 경락에 기계적인 자극을 주며, 동시에 피내(皮內)로 자동 주입된 적당량의 봉독이 약리작용을 지니게 된다. 봉침은 국소부위의 충혈작용과 아울러 온구(溫灸)의 효능을 지니고 있다. 봉침요법은 침, 약, 뜸의 3가지를 결합한 복합적인 치료방법인 것이다. 봉침요법은 재료가 구하기 쉽고, 임상에서 치료효과가 뛰어나면서도 비용이 저렴하며, 환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전형적인 자연요법으로서, 그 발전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연제에서는 봉침에 관한 역사에서부터 봉독의 생성, 성분, 치료 및 임상에 이르기까지 봉침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기술해 볼까 생각한다.

사실은 약1년 전부터 중국의 봉침요법의 선구자격인 방주교수(국제봉료보건 및 봉침요법연구회 회장, 중국양봉학회 주임)와 저(한국봉료보건연구회 회장 겸 국제봉료보건학술연구회 부회장)와 합작으로 진정한 봉침요법의 지침서가 될 수 있는 봉침요법의 전반에 관한 서적을 발간하기로 합의하고 그동안 꾸준히 자료를 수집하고 원고를 정리하여 왔다. 이제 멀지 않아 방주교수와 저와의 공저(共著)로 봉침요법에 관한 서적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날이 있어 리라 확신한다.

이번 연제에는 모두 7장으로 구성해볼까 생각 한다 (실은 새로 출판할 저서의 내용과 동일한 구성임) 제

1장은 서론으로서 봉독요법의 역사를 회고하고, 침구술의 한 갈래로서의 봉침요법의 특징을 논하면서 봉료보건의 앞날에 대한 전망을 소개하고, 제 2,3,4장에서는 벌의 독침에 대한 해부와 기능, 봉독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아울러 봉독의 각종 성분의 생화학적 구조, 활성, 기능을 자세히 설명 하겠으며, 여러 나라의 다양한 종류의 봉독약제와 각종 봉독투약경로(무침형 봉침기법을 포함), 그리고 각종 질병에 따른 치료효과를 제시할까한다. 제 5,6장에서는 봉침을 침구기법의 개념에서 보고 경락학설과 14개 경락의 혈위 365개, 경외기혈(經外奇穴) 50여 종, 이혈(耳穴) 수십 종과 함께 봉침의 조작기술과 과민반응에 대한 예방방법 및 처리방법을 설명할까하고 제 7장에서는 봉침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110여종의 병증에 걸쳐 그 변증 논리와 봉침기법에 대해 설명할까한다.

이번 새로이 봉침요법에 관한 내용을 연제함에 있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출판 예정인 이 원고를 토대로 하여 추려서 체계적으로 연제할 예정이오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랄 뿐이다.

제 1장 서론(序論)

제 1절 봉독요법(蜂毒療法)의 오랜 역사(歷史)

벌의 침이 사람을 쏘게 되면 붓고 아프고 가렵게 만드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상식이다.

중국에서는 일찍이 춘추시기의 시가집인『시경(詩經)·주송(周頌)·소(小)』에"막간 봉 자구신석"「莫于蜂, 自求辛」이라는 경구가 있어 벌에 쏘이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기원전 3세기에 쓰여진 좌전(左傳)·권(卷)11』에서는 이미 "벌과 전 같은 독이 있다"「蜂有毒」라고 기록하고 있다.

고대 희랍의 과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기원전384~기원전322)도 그의 동물학 저서에서 꿀벌과 나나니벌에 독침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대 이집트와 바빌로니아 시대부터 봉독을 인체질병에 활용하였고, B. C 2000년경 히포크라테스(Hipocrates)가 벌침을 임상에 활용했다, 그는 열이 날 때 벌꿀을 권유하여 벌꿀을 의학용으로 사용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치료에 봉침과 봉독을 사용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역시 그리스의 의사로 "실험생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갈레노스(A.D. 130~200)는 500여종의 치료법을 정리해놓은 그의 저서에 꿀벌의 치료적 효과에 대해 기록해 놓고 있다.

회교(回教)의 경전인 코란(Koran)에도 그들(벌)의 뱃속에 들어있는 액은 사람에게 좋은 것이다. "(16장 71절)"라고 봉독의 효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고 있으며 봉침을 이용하여 여러 종류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전해지고 있다. 중국의 전통의학에는 "이독제독(以毒制毒)"의 치료원칙이 있는데, 민간에서도 명대에 이르러서는 임상에서 이미 "약봉침(藥蜂針)"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방이지(方以智)『물리소직(物理小識)』, 1,700여 년 전 고대 로마의 의학자인 갈렌(Galen)은 봉독이 통증을 없애는데 다양한 용도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꿀벌이 지구상에 출현한 것은 이미 수 천 만년의 역사가 있으니 인류보다 한참을 앞선 셈이다. 중국의 산둥성(山東省) 임구현(臨 縣) 산왕(山旺)지구에서 발견된 꿀벌의 화석은 2,500만 년 전의 것이다. 원시인들은 야생멧돼지, 곰 등이 벌꿀을 탐식하는 것으로부터 배운 탓에 그들이 섭취한 음식물 중에 필연적으로 맛이 단 벌꿀이 포함되게 되었을 것이다. 벌집으로부터 벌을 쫓아내고 꿀을 얻어내는 과정에서는 벌에 쏘이기 십상이다. 그런데, 벌의 침은 인체의 국소부위 또는 전신부위의 반응을 일으키는 동시에 관절염, 류마티즘 등의 질병이 잘 치료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였다.

벌에 쏘인 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 되어 벌의 독으로 질병을 치료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벌의 침을 통한 질병의 치료는 민간에 널리 전파되어 그 역사가 아주 오랜 것이 되었다.

기원전 2세기 경에 쓰여진 고전 의서인 『內經』의 내용 가운데에도 "병이 안에서 생기면 그 치료는 독약(毒藥)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病生于內其治宜毒藥)."라는 치료원칙이 있는데, 봉독을 이용한 치료도 또한 "이독공독(以毒攻毒)"의 자연요법이 되는 것인데, 다만 중국 명대 이전의 의약전적 중에서는 봉독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것에 관한 명확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 고전 의에서도 아직은 봉침 혹은 봉독에 대한 구체적으로 기록된 문헌은 불행하게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어디엔가 분명히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문헌을 찾는데 좀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봉독을 이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구미국가들에서도 또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1,700여년 전, 고대 로마의 의학자인 갈렌(Galen)은 봉독이 동통을 멈추는데 사용되며 그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서유럽의 봉건제국이었던 샤를마뉴제국을 세운 샤를 대제(742~814)와 러시아의 짜아르(1530~1580)도 모두 일찍이 봉독을 이용하여 그들의 통풍성관절염을 치료하였다. 봉독요법이 민간으로부터 궁정의료로 전파, 발전된 예라 할 수 있다.

1888년 『비엔나의학주간』에 오스트리아의 의사 테르치(F. Terc)의 『봉독을 이용해 류머티즘을 치료한 173례』라는 논문이 발표된 이후, 현대의학에서 봉독을 이용해 질병을 치료하려는 연구가 많은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다. 1935년 미국에서 출판된 베크(B. F. Beek)박사의 『봉독요법』과 1941년 소련에서 출판된 아르테모프(N. M. Artemov)교수의 『봉독의 생리학적 작용과 의료에의 응용』이라는 두 저작 이래로 봉독의 연구와 의료에의 응용에 대한 저술은 세계 각지에서 모두 잘 알려져 있다.

방주 회장은 1956년부터 봉독을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먼저 1957년 『중국양봉(中國養蜂)』이라는 잡지의 제 12기에 『봉독요법개설(蜂毒療法概述)』을 발표하여 봉독의 의약적 응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양봉업계에서 봉독자원을 개발, 이용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을 주창하였다. 1959년 중화의학총회(中華醫學總會)에서 출판한 『인민보건(人民保健)』이라는 잡지의 제 8기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경락 혈위를 따라 벌침을 쏘거나 봉독약제를 주사할 것을 제기했는데, 이 논문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 1회 봉침요법에호가들의 학술교류에서도 발표되었고, 1974년 외리쉬(N. P. Yoirish)박사가 저술한 러시아어판 『꿀벌과 의학』이라는 저작에도 인용되었다. 20세기 70년대 이후 이렇게 중국의 전통적인 특색을 갖춘 봉침요법은 점점 일본, 한국과 기타 국가에서도 광범위하게 응용, 발전되기에 이르렀다.

침구의술의 세계화에 발맞추어 봉침요법도 날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1979년 10월과 1984년 7월에 일본봉침요법연구회와 한국봉침요법연구회가 각각 세워져 봉침요법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기에 이르렀다. 1980년부터 일본봉침요법연구회는 부정기적으로 『봉침(蜂針)』이라는 잡지를 출간하여 26기에 이르고 있는데, 이 연구회의 深澤光一 회장은 1987년 출판된 『봉침건강법』이라는 저작에서 방주 선생이 펴낸 『중국봉침요법』의 내용을 신기도 하였다.

1986년 4월에는 방주 선생이 일본의 양봉학회의 요청으로 처음 일본에 가서 일본봉침요법연구회의 회원들과 교류를 가졌으며, 1984년에는 한국봉침연구회로부터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한,중간 봉침요법에 관한 기술교류가 시작되었다.

그 후 1991년 한국, 중국, 일본이 주축이 된 아시아권 18개국이 모여 국제봉료보건 및 봉침요법학술연구회를 결성하여 봉침요법의 국제적인 기술교류가 시작되었고, 1978년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봉료학회가 결성되었으며, 2001년 3월에 유럽권이 중심이 된 국제봉료학회가 결성 되어 동양, 유럽, 남미의 학회 서로간의 활발한 기술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봉독은 1,100여 년이라는 오랜 시간의 경험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천연약물이다. 고금을 통해 세계

어디에서나 의료 활동에서 봉독의 응용은 아주 풍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데, 다만 인류가 봉독약제를 생산하기 시작하지 겨우 75년에 불과하다. 독일의 "Apicosan"이 바로 1927년에 생산된 봉독주사액이 그것이다.

봉독의 활성성분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근래에는 이미 분자, 세포수준에서 봉독의 효능에 대해 부단히 많은 것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런 발견들은 봉독의 의약적 응용뿐만 아니라 양봉학, 곤충학, 생물학, 생화학, 물리화학, 약리학, 독성학(毒性學) 등의 학문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봉독을 채취하는 방법이 급속하게 발전됨에 따라 현재의 양봉업계의 잠재력을 활성화한다면 풍부한 봉독자원을 얻어낼 수 있다. 중국은 세계적인 양봉국가의 하나로서, 현재 사육되고 있는 꿀벌이 400만 군(群)이 넘으며, 각 군(群)마다 매년 1g정도의 봉독을 추출할 수 있어 매년 약 2,000kg정도의 봉독을 얻어낼 수 있는데, 이는 벌꿀 20,000t가량을 증산하는 것과 맞먹는 산업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한국에도 현재 140만군이 넘는 봉군을 사육하고 있으며 각 군당 1g정도의 봉독을 생산한다고 가정할 때 1,400kg정도의 봉독을 얻어낼 수 있으며, 이것은 벌꿀 6,000t 이상을 생산하는 것과 같은 경제소득을 올릴 수 있다.

봉독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 한 사람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평균용량은 0.2g를 넘치 못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수만kg의 봉독으로 만들어진 약제를 주사, 외용, 이온도입, 초음파투입 등을 통해 사용하면 수천 만 명의 환자에게 약물을 제공할 수 있는 양이 된다. 이로 인해 봉독을 개발, 이용하는 것은 양봉업계에 많은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의약계에도 풍부한 천연약재를 공급 받을 수 있어 여러 방면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제 2절 봉침술(蜂針術)도 역시 침구기법(鍼灸技法)

인류는 꿀벌의 독침을 침의 도구로 사용하여 경락, 피부, 혈위에 따라 여러 종류의 침자수법을 씬으로써 질병을 예방, 치료하여 왔는데, 이것을 봉침요법, 간략하게는 봉침이라 말한다.

봉침요법은 민간에서 벌에 쏘여 질병이 낫게 된 경험을 침구술과 결합시켜 발전된 것으로서 의술의 한 종류라 할 수 있다. 봉침요법은 대체의학의 한 분야 중 하나이며, 각 국의 봉침연구자들의 계승, 발전을 통해 이미 의료보건의사업의 영역에서 특출한 효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

봉침요법은 인체의 경락에 기계적 자극을 가하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피내(皮內)에 주입된 적당량의 봉독이 약리작용을 함으로써, 국소부위의 충혈과 함께

온구(溫灸)의 효능을 지니고 있다. 봉침요법은 침, 약, 뜸의 세 가치를 결합한 복합형의 자구법(刺灸法)으로서, 가격이 저렴하고 간편하면서도 뛰어난 효능을 보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어디에서나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다.

침구는 중국에서 기원하였는데, 경락학설은 중국 고대의 커다란 발견 중 하나이다. 3,000여년 전 인류는 약물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적었던 반면 침구의술이 중국의학의 주체를 이루고 있었다. 중국의학의 고전인 『내경(內經)』은 『소문(素問)』과 『영추(靈樞)』의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소문(素問)』은 의경(醫經)으로서 치료방법에 있어 침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영추(靈樞)』는 침경(針經)으로서 주로 경락, 혈위와 함께 침구의 이론과 실재를 다루고 있다. 『영추(靈樞)·구침십이원(九針十二原)』에 의하면, "펄석(石)을 사용하지 않고, 가느다란 침으로 경락을 통하게 하고 기혈을 조화시킨다. 구침(九針)은 각기 모양이 다른데, 첫째는 참침(針)으로서 길이가 1촌 6푼이며 머리부위는 크고 끝은 가늘어 양기를 사(瀉)하는 효능이 있다. 둘째는 원침(圓針)이며 또한 『영추(靈樞)·구침십이원(九針十二原)』에 의하면, "첫째 참침(針)이라 한 것은 "巾"에서 뜻을 취한 것이다. 침 끝으로부터 반촌 되는 곳까지 화살촉처럼 날카롭다.

봉침은 중국 고대의 구침(九針) 중 참침(針)형의 침구로서, '참()'이란 고대의 삽과 같이 생긴 기구를 뜻하며, 참침(針)이란 곧 '巾'형의 침으로 머리부위는 크고 끝은 가늘다는 말은 침 끝이 단지 1푼 가량 정도이고 또 가늘다는 뜻이다. 고대의 도량형에 의하면, 참침(針)의 길이가 1촌 6푼이라 함은 약 2.3cm에 해당하며, 침자할 수 있는 깊이는 겨우 1.5mm정도이다.

일벌의 봉침은 산란기관의 일부가 특수하게 변형되어 형성된 것인데, 봉침이 표적을 향하면서 봉침의 기부(基部)와 발사기관의 작용으로 리듬감 있는 수축활동이 일어나 봉독이 자동적으로 표적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며, 한번 사용하면 곧 버려지는 천연의 자침(刺針)이자 '자동화미량주사기'라고 할 수 있다.

봉침이 피부 안으로 들어가는 깊이는 1~1.5mm이다. 봉침의 자법(刺法)은 고대의 침법 중 모자(毛刺), 양자(揚刺), 부자(浮刺), 반자(半刺) 등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고대의 침술에는 다양한 형태의 침이 있었고 또한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침자기술이 있었는데, 이른바 "질병마다 침이 다르고, 침마다 그 기법이 다르다(病不同針, 針不同法)."라고 한 변증시치(辨證施治)의 원칙이다. 『영추(靈樞)·관침(官針)』의 기록에 의하면, "무릇 자침(刺針)에는 아홉 가지가 있으니, 이에 응하여 아홉 가지 변화가 있다(凡刺有九, 應以九變)."이라 하였다. 즉 아홉 가지의 다른

자법(刺法)으로 아홉 가지의 병증을 치료한다는 것인데, 그 중 "모자(毛刺)란 피부의 부비(浮)를 자(刺)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을 보면 '모(毛)'란 가늘다는 뜻으로서 모자(毛刺)란 여러 개의 침으로 얇게 자(刺)함으로써 비증이 표면에 있는 것을 치료하는 것이다. 봉침의 산자법(散刺法)과 매화침(梅花針), 칠성침(七星針)과 같은 것들도 모두 모자(毛刺)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영추(靈樞)·관침(官針)」에서는 "무릇 자(刺)함에는 12절(節)이 있어 12경(經)에 응한다."라고 하였다. 12경(經)의 병증에 대해 12가지의 자법(刺法)을 사용했는데, 그 가운데 면적이 비교적 넓으면서도 깊이가 얇은 한비에 대해 사용한 '양자(揚刺)'(가운데 1개의 침, 주위에 4개의 침을 얇게 자(刺)한다)와 근육 경련 등에 사용한 '부자(浮刺)'(얇게 자(刺)하여 근육을 상하지 않는다)가 봉침의 자법(刺法)과 같은 것이다.

「영추(靈樞)·관침(官針)」에서는 또한 "무릇 자(刺)함에는 다섯 가지가 있어 오장(五臟)에 응한다."라고 하였다. 중국의학의 장상학설(臟象學說)에 의하면 오장(五臟)의 병증에 있어 다섯 종류의 자법(刺法)을 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폐장(肺臟)이 허(虛)한데 사용하는 '반자(半刺)'(피부를 얇게 자(刺)했다가 급히 침을 빼서 피부(기육 肌肉)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도 봉침의 자법(刺法)과 같은 것이다.

지금 시대의 꿀벌은 상당히 진화된 사회성이 강한 곤충이다. 꿀벌의 독침에서는 봉독이 생성되며, 꿀벌은 이로써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상대를 공격하는 등의 일종의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생물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봉독은 자익소(自益素)의 범주에 속한다. 생화학과 약리학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로는, 봉독은 활성펩티드, 효소와 생물학 모니아류 등의 활성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적인 효용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전의 '봉자요법(蜂刺療法)'은 모두 꿀벌을 직접 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꿀벌이 쏘 때의 동통과 국소 부위의 반응이 사람으로 하여금 겁을 먹도록 만들곤 했다. 그러나, 현대에 사용하는 봉침산자법(蜂針散刺法)은 시술자가 자극의 강도를 조절하여 얇게 자(刺)함으로써 그다지 동통을 느끼지 않는다. 한 마리의 꿀벌의 봉독을 5~7개 또는 10여개 부위에 나누어 주입함으로써 각 부위에 별 무리가 없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각 부위에 나누어 주입된 봉독은 독성반응이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로 인해 봉침요법에서의 용어를 보면 '봉독(蜂毒)' 대신 '봉침액(蜂針液)'이란 용어를 대신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봉독을 이용한 어떠한 약품도 봉침요법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봉독 중 2/3를 점유하는 휘발성성분이 약제를 재제하는 도

중 모두 소실되기 때문이다. 이런 휘발성성분 중에는 13종 이상의 분리가능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성분들은 온경통맥(溫經通脈), 부양산한(扶陽散寒) 등의 특수한 효능을 지니고 있다.

현재의 전통의학에서의 장부(臟腑), 경락학설과 침구의술 및 봉독의 성분과 활성에 대한 현대적 연구는 봉침요법의 발전에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봉침의 적용범위는 민간에서부터 전해진 관절염, 신경통을 치료하는 것에서부터 여러 종류의 운동계통병증, 신경정신병증, 많은 심혈관과 소화기계통병증, 내과, 외과, 소아과의 병증, 부인과, 남성 병의 병증, 구강질환, 이비인후과 질환, 피부병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

중국 고대의 봉침요법은 침자(針刺)의 방법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벌의 독침을 사용하여 약구(藥灸)로 쓰기도 하였다. 방이지(方以智)(1611~1671)는 「물리소식(物理小識)·권(卷)5」에서 '약봉침(藥蜂針)'의 배합방법과 용법을 기록하기를, "나나니벌의 꼬리침을 취하여 유황과 함께 재련하고, 여기에 빙편(氷片)과 사향(麝香)을 가하여 창양(瘡瘍) 부위에 붙인 뒤 불을 붙인다. 먼저 젖은 종이로 창양(瘡瘍) 부위를 덮은 후 쉽게 마르는 쪽이 창(瘡)의 뿌리이다."라고 하였다. 전통적인 '약봉침(藥蜂針)'의 외치법(外治法)의 기초 위에 발전된 경혈을 따라 붙이는 봉독약제인 봉독해통고(蜂毒解痛膏)는 방씨봉펩티드유를 바른 후 경혈을 따라 봉독이온도입법이나 초음파투과법을 쓰는데, 모두 무침형 봉침요법에 속한다.

방주선생이 직접 치료한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기관지천식환자들의 경우 40여 년이 경과하면서도 다시 재발하지 않았고, 만성 간질환으로 인한 간경화복수환자와 같이 현대의학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경우도 봉침과 봉독약제를 결합하여 치료가 된 기적 같은 경우를 낳기도 하였다. 기능성 양위(陽)와 같이 남자들이 매우 곤란하게 여기는 질환과 같은 경우도 봉침으로 치료효과를 거둔 경우가 93.2%에 달하였다. 노년기의 성기능장애도 또한 봉침치료를 받으면 성생활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며, 노화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

필자의 경험에서도 간질(癲癇)을 치료한 경험도 있으며 간경화 등 그 외의 여러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다.

봉료지도사들은 어디에서나 봉침으로 환자들의 병증을 치료 해 줄 수 있다. 또한 봉침은 침, 약, 뜸의 3가지를 겸한 것과 같다는 특징이 있으며, 살아 있는 생물의 조직기관을 침구로 이용한다는 것도 또한 전통적인 각종 침구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봉침요법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의료보건사업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다음호에 계속 -